

건설사 폐업률은 장기 평균과 유사한 수준입니다.

< 보도 내용 (한국경제, 11.26) >

◆ 연말 최악의 위기 맞았다... 지방 건설사 줄도산 조짐 ‘경고등’

- '23.1.1~'23.11.26 동안 종합건설사의 폐업신고 건수가 모두 496건으로, 지난해 동기 대비 67%가 증가하였고 '06년 이후 17년 만에 최대치

□ 기사에서 언급된 종합건설사의 폐업신고 건수 496건은 실제 폐업 업체 수가 아닌 건설업 폐업신고 행정공고 건수로서,

- 행정공고는 보유 업종 중 일부만 폐업신고를 하거나 업종전환 등록(종합 내 다른 업종, 종합 → 전문업종), 공고변경·정정·철회 등을 모두 포함한 수치입니다.

□ '23.1~'23.10월까지 실제 종합건설사 폐업 업체수는 총 326건에 해당하며, 폐업의 비교는 그간 건설업체 수 증가를 감안하여 전체 업체 수 대비 폐업 업체수(폐업률)로 비교하는 것이 보다 적절합니다.

- '23.1~10월 폐업률은 1.7%이며, 코로나 이전 장기평균('05.~'19.)인 1.7%와 유사한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.

<종합건설업 관련 추이(1~10월 기준)>

	'05	'06	'07	'08	'09	'10	'11	'12	'13	'14
업체수	13,401	13,010	12,966	12,798	12,438	12,076	11,710	11,391	10,994	10,936
폐업업체수	308	326	212	227	245	260	288	249	202	160
폐업률(%)	2.3	2.5	1.6	1.8	2.0	2.2	2.5	2.2	1.8	1.5
	'15	'16	'17	'18	'19	'20	'21	'22	'23	장기 평균 ('05-'19)
업체수	11,204	11,529	12,020	12,587	13,032	13,530	14,210	18,707	19,277	
폐업업체수	135	126	110	114	171	177	132	179	326	
폐업률(%)	1.2	1.1	0.9	0.9	1.3	1.3	0.9	1.0	1.7	1.7

□ 정부는 최근 공사비 상승 등 건설사의 경영여건 등을 감안하여, 관계기관과 함께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(9.26.) 등을 차질 없이 이행해 나가겠습니다.

담당 부서 < 총괄 >	국토교통부	책임자	과 장	이익진 (044-201-3504)
	건설정책과	담당자	사무관	김효석 (044-201-4597)
	기획재정부	책임자	팀 장	김준하 (044-215-2850)
	부동산정책팀	담당자	사무관	원종혁 (044-215-2852)

